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성황리에 폐막

~ 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을 양국 정부에 촉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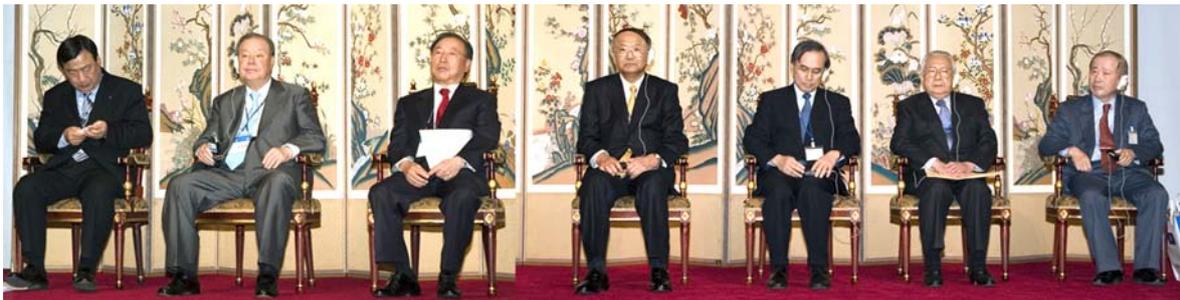


우리협회는 (사)일한경제 협회와 공동으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07. 4. 12~13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급격하게 변화

하는 세계 환경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며 한일 무역·투자의 활성화와 양국 공동과제 해결, 기업 간 교류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폐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국에서 사상 최대의 기업인이 참가하였는데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96명(부산지역 기업인 34명 포함), 일본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단장 등 116명, 총 312명으로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등으로 어려워진 한일 관계 속에서도 한일 협력을 바라는 경제인들의 염원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부산경제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채널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아시아의 역동성과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한일 FTA, 무역확대, 양국간 투자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 한일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에 양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계가 앞장서서 한일 양국간의 협력 무드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감으로써 보다 한 차원 높은 양국 관계로 발전·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 구축과, 진정한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양국 경제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수행을 충실히 실천한 회의였습니다.



한편, 한미 FTA의 타결 직후 부산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에 수많은 한일 양국 기업인들의 눈이 집중되었으며, 이들간의 회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에서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한일 경제계의 가장 핵심 이슈인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일 FTA 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 소식지에 일본측 기조연설문(발표자 : 하타케야마 노보루 (재)국제경제교류재단 회장)을 게재합니다.(6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제40회 회의가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희망테마와 제안사항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일본측 단장단의 한덕수 총리 예방



양국 단장 부산김해공항 영접모습

개회식 전 VIP 환담



개회식장으로 향하는 주요인사

양국 단장의 개회식 진행모습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상하 명예회장과 하타케야마 노보루 회장

진행하는 허남정 전무

◎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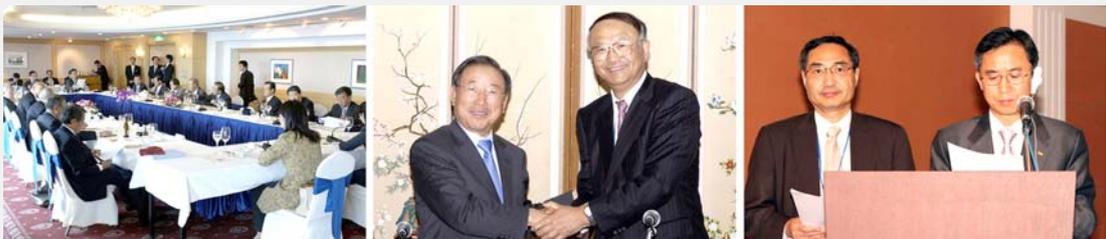
왼쪽부터 축사자 이희범 고문, 오시마 대사 / 경과보고자 허남정 전무, 유창무 চে어맨, 아스 চে어맨



한일 공동주최 리셉션 (축사하는 허남식 부산시장, 건배제의하는 라응찬 부단장, 축하공연 모습)



이틀째 회의 전경과 2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설원봉 부단장, 사메시마 부단장



공동성명(안)을 심의하는 양국 단장단

매스컴 포토타임

공동성명 채택



양국 단장 기자회견 모습

APEC누리마루를 방문한 양국부인들

한일·일한경제협회 회장&전무

제26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조석래(趙錫來) (주)효성 회장]의 제26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7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메랄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우석형(禹石亨) 부회장**[(주)신도리코 회장], **최용권(崔用**

權) 부회장[삼환기업(주) 회장]이 재선임되었으며, 임기만료 임원중 사임을 표명한 유상부(劉常夫) 부회장[(주)포스코 고문]의 후임으로 **이구택(李龜澤) (주)포스코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사임을 표명한 성재갑(成在甲) 부회장[LG석유화학(주) 고문]의 후임으로 **구본준(具本俊) (주)LG상사 부회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사임을 표명한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전 삼성물산(주) 회장]의 후임으로 **윤종용(尹鍾龍) 삼성전자(주) 부회장**이 지난 4월 추가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협회의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 한일 양국 경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한일경제인회의 및 산하 전문위원회 개최, 한일비즈니스상담회 개최,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교류회의 개최 등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 2월 15일(목) 오전 11시30분에 서울 신라호텔 23층 프라도에서 회장단회의(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

♣ 한일경제협회 신임 부회장 Profile ♣

 <p>具本俊 KOO Bon Joon</p> <p>(株)LG商事 副會長</p> <p>1951년생 1978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1982 미시카고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8 한국개발연구원 근무(연구원) 1982 MIAT&T 근무 1987 금성사 부장 1994 LG전자 상무 1996 LG화학 전무 1997 LG반도체 대표이사 2004 LG.Philips LCD 부회장 2007 (주)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p>	 <p>尹鍾龍 YUN Jong Yong</p> <p>三星電子(株) 副會長</p> <p>1944년생 1966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1988 MIT SLOAN SCHOOL 수료 1966 삼성그룹 입사 1977 삼성전자공업(주) 동경지점장 1992 삼성전자(주) 가전부문 사장 1992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사장 1994 삼성전관(주) 대표이사 사장 1995 삼성그룹 일본본사 사장 1997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2000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부회장</p>	 <p>李龜澤 LEE Ku Taek</p> <p>(株)POSCO 會長</p> <p>1946년생 1964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9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1969 포항제철(주) 입사 1982 포항제철(주) 수출부장 1988 포항제철(주) 이사대우 1990 포항제철(주) 상무이사 1992 포항제철(주) 전무이사 1996 포항제철(주) 부사장 1998 (주)POSCO 대표이사 사장 2003 (주)POSCO 대표이사 회장</p>
--	---	---

제1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 2007년 7월 10일(화)~13일(금) 부산광역시 부산롯데호텔에서 ~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자체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오는 7월 10일(화)~13일(금)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양 지역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동안의 한일 지역 간 경제협력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①관광 ②물류/투자 ③IT(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즈니스 정보 교류를 위해 테마별 분과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 큐슈 지역과의 산업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큐슈(九州)지역은 일본 열도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고,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및 가고시마(鹿児島)의 7개 Prefecture로 구성되어 있음

- 큐슈지역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 면적은 일본 전국의 11.2%, 인구는 10.6%, 총생산액은 8.7%로 대략 일본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1할 경제」로 불림
 - 그러나 선박준공 실적(33.4%)과 IC생산량(31.5%) 등은 일본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생산거점임
 - 큐슈의 지역 총생산액(GDP)은 세계 13위의 오스트레일리아와 14위의 네덜란드에 필적하며, 네덜란드와는 GDP·인구·면적도 거의 비슷한 규모임



제9회 한일고교생교류 캠프 개최

우리 협회는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구축의 기초가 되는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서 미래의 양국 경제계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한일 고교생교류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8월 5일(일)~8월 9일(목)까지 4박 5일 간 일본 도쿄에서 양국 고교생 약 80명이 참가하여 제9회 고교생교류 캠프를 개최합니다. 본 캠프는 양국 고교생들이 상대방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합숙을 하면서 양국 고교생 10명씩 혼성팀으로 나누어 한일에 관계되는 사업기획을 팀별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교류캠프활동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돈독한 우정은 물론 새로운 국가관을 갖게 하는 등 대단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9회 한일고교생 교류캠프에 참가할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5일(일)~9일(목) 4박 5일, 일본 도쿄하네다연수센터(신코증권 연수원)
- ☞ 참가인원 : 한일 양국 고등학교 재학생 각 40명(합계 80명)
- ☞ 모집방법/기간 : 기 참가학교+신규 고등학교+협회 회원사에 안내 (모집마감 : 2007. 5.22일(화)까지)
- ☞ 참가비 : 참가학생 1인당 70만원 (왕복항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교육비, 여행자보험 포함)
- ☞ 주최/후원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 일본외무성, 국토교통성, 주일한국대사관
- ☞ 캠프내용 : 자세한 캠프 프로그램은 <http://www.jkcamp.org/> 참조
- ☞ 신청서/서약서: <http://www.kj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기조연설 전문(녹취록) ☜

한일 경제관계의 강화를 위해

畠山 襄(HATAKEYAMA Noboru) (財)國際經濟交流財團 會長

첫머리에

소개받은 하타케야마입니다. 분에 넘치는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국경제연합회의 회장님이시며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이신 조석래 회장님, 그리고 일한경제협회 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 한국무역협회의 이희범 회장님, 주한일본대사관 오시마 쇼타로 대사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전통 있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예전부터 존경하며 친분을 나누어 온 한일경제협회의 김상하 명예회장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저는 일본 통산성 무역국장으로 있으면서 일한경제협회가 파견한 미션의 일원으로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이후 아까 말씀 해주셨듯이 JETRO 이사장, 도쿄·서울 담당 각료님께서 참석하신 투자 촉진위원회 일원으로서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데요. 12월에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제경제교류재단과 한국의 Think-Tank인 동아시아협의회와의 공동개최로 한일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이지마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입각하여 오늘 한일관계에 경제관계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공동과제 등등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FTA를 중심으로 한일경제관계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면한 한일 경제상황

먼저 직면한 한일경제상황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경제는 2002년 2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회복과정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특징은 공공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설비투자 등 민간주도형 경제성장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2%였습니다. 그리고 2007 회계연도의 실질성장률은 일본은 회계 연도가 4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2007년 회계연도는 실질성장률 2.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전망이구요. 민간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상황은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규 구인수라든지 유효구인배율이라든지 이러한 숫자가 1월 숫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 관해서는 소정내 급여 즉, 기본급이 증가하는 기조에 있으며, 또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배경으로 노동시장이 압박을 받아서 1인당 임금이 상승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분야는 계속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개인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기업부문에서 기업부문 성장에서 가계부문 성장으로 이것이 조금 앞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인상이 또 예측이 되고 있으며 이것도 기업에서부터 대출상대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개인소득의 증가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이 가계에 미칠 영향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각부는 1%의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이자지불은 3조엔 올라갔지만 가계는 준비소득은 약 6조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원화절상, 미국 원유가 상승에 있어서 작년에는 5%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5%나 성장하고 계셔서 높이 평가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2. 한일 경제관계의 현황

(1) 무역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무역은 앞서 김상하 명예회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생략을 하고, 약간 한일간에서 보는 통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소개를 하자면,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아까 243억 달러의 흑자가 아니라 230억 달러 흑자, 약간 숫자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측의 흑자가 일본측 통계에 의하면 230억 달러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통산성 무역국장에 있었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일본측의 흑자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문제인데요. 최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액정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판넬이라든지 DLM(Dynamic Load Management)이라든지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신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는 쪽이 더 고객 지향적으로 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본기업 일부에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에 대체해서 핵심 부품을 한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또 본격화되면요. 수요가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의 대일수입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삼성과 소니의 합작사례 등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요. 미쯔비시 레이온과 호남석유화학 M&A 합작회사를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본격화되면 일본으로부터 수출을 대신해서 한국내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투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므로 일본의 대한투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일투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외직접투자는 184억 달러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축하할 일인데요. 그 중에 대일투자 비율은 불과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도 대내 직접 투자에 수용증가를 일본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있으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제외하면은 OECD 가입국인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대환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전 세계 차지하는 시한은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1.6%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세계투자제한의 비율에 근접한 비율을 한국 분들에게서 대일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대일투자를 하시면 거기에 함께 일본의 대한수출도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서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은 일본의 대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3. 한일 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문제

(1) 저출산화

세 번째로 한일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일단 저출산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특수 출생률이 2006년 1.29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1.25에 비해서는 하방 경직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서 재작년 1.08이 1.01정도로 떨어졌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도 아동수당이라든지 사무실 내 탁아소 증설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서 32조원을 투자하는 저 출산 종합대책 이런 것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기꺼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그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공동책임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기업들은 종업원의 자녀 수 및 그 자녀 수 대 종업원 비율을 임의로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떤 걸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은 기업은 사내에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손 사장님께서 계시는 소프트뱅크가 이번 달 초부터 근로자를 위한 출산 장려금을 발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나오면 100만 엔,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300만 엔, 다섯 번째 이상은 1인당 500만 엔씩, 출산 축하금·장려금으로써 지불한다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이 경쟁적으로 사내의 출산·육아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양극화문제

두 번째 공통과제는 양극화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격차문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양극화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도 개인도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격차를 더욱 더 벌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경쟁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본래 평등을 원하는 공산국가인 중국 체제 이는 중국도 등소평이 먼저 필요로워질 수 있는 자는 먼저 필요로워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로워진 사람과 나중에 필요로워지는 사람 사이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공산권 제도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과 일본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회 격차의 크기를 얘기하는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낮을수록 격차가 좋습니다. 0.265입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한국은 0.31정도,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 약간 많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 저성장 시대에 고용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고 분리가 됩니다.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자에는 정규사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속칭 파트노동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을 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용자 가운데 파트 타임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6%까지 달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7.7%로 매우 낮아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3) 지구환경문제

세 번째 공통과제는 지구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는 아시다시피 21세기를 살아 나갈 우리 인류의 똑같은 주어진 커다란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OECD에 가입한 오로지 두 나라로서 적절한 감축의무를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CO₂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004년 일본의 CO₂ 배출량 대(對)세계비율은 일본이 CO₂를 배출하고 있는 양을 전 세계의 CO₂ 배출량으로 나누는데요. 그 세계대비는 4.6%였습니다. 일본의 GDP 비율은 2004년 GDP 세계 대비는 11.1%였습니다. 이 CO₂는 4.6%만 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것 같아서 황송합니다만, 일본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대단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CO₂등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한국의 CO₂ 배출량 對세계비율은 1.7%였습니다. GDP는 한국은 1.6%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간이긴 합니다만 CO₂ 배출 對세계기준이 조금 더 큼니다. GDP 비율 보지요. 따라서 CO₂ 배출량이 GDP 對세계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주요국가 중에서는 한국 외에는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 나라는 OECD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회원국이지만 CO₂ 등의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에너지절약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협력을 한 일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국도 13년 이후에 2013년 이후에 포스트 교토의정서 계획에 따르면 그때에는 감축의무를 지시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헌해주실 것을 바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에 왔습니다. 중국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에 이 감축의무를 지는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국 쪽도 나가주시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4) 중·인도 대두에 따른 대응

네 번째로 중국과 인도 대두에 따른 대응입니다. 먼저 일본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으로부터 저가격 수입품이 수입되어 예를 들어 공장을 폐쇄한다거나, 임금삭감 압력을 받는 경우도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인식으로 볼 때 역시 일본과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렴한 가격의 수입덕분에 인플레이 없이 최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미국의 인플레이 없는 경제성장은 서비스는 인도에서, 제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Think-Tank와 공동연구를 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대두,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인데 중국과 인도의 대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도 경제 성장 자체는 위협이 아니다, 위협은 오히려 그들의 경제체제다. 만약에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그것이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과 인도의 우수한 부분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경제 속에 도입을 하고 취함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아웃소싱은 현재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점점 늘려서 그리고 그들의 성장력을 자국의 성장력에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글로벌화에 따른 대응

마지막 공동과제입니다. 이것은 글로벌화에 따른 대응인데요. 먼저 한미FTA에 대해서입니다. 작년 2월 이후 협상이 지속되었던 한미FTA가 지난 주 초에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경제관계, 그리고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등등에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FTA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조업의 대한투자가 이로 인해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FTA로 한국에서 대미수출을 하게 되면 무관세인데 반해 일본에서 대미수출을 하면 평균 4%내외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일본기업들은 대미 혹은 대한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미관계가 이 FTA 타결로 인해서 극적으로 개선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FTA라는 유대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한미의 정치적관계도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FTA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한일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한미FTA를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서 한일FTA를 거듭 추진하도록 먼저 경제계 분들이 서로 자국의 정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체계를 위해서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계분들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내용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일FTA에 응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한일FTA는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98년에 당초 한국이 일본측에게 제안을 해서 연구·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98년 11월말 당시의 한일경제각료회의가 가고시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자부 장관은 당시에는 한덕수 현재 국무총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제창을 하셔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그러한 주도력에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저는 깊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를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저는 당시 JETRO 이사장이었는데요. JETRO에 있는 아시아경제연구소라는 곳과 또 한국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두 군데가 주축이 되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5월 정도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제1차 연구회였습니다. 제2차 연구회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제3차 연구회도 있었습니다. 즉, 한일 경제계에 계신 분들은 한일FTA에 대한 연구회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지쳐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미FTA도 이렇게 타결이 됐으니 이것을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 또 이것을 하나의 연구 재료로 삼아서 한일FTA 협상재개도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FTA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최근의 정상차원에서 이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실 한일 간에는 고도의 투자협정이 있었습니다. 한일 간에는 더 투자협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고도의 투자 협정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건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할 때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초보적인 투자협정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투자를 해오는 외국기업에 내국민대우 등을 인정한 그러한 고도의 투자협정이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화 마지막인데요. 동아시아 FTA와 한일관계입니다. 동아시아 FTA에 관해서는 두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입니다. 이것은 ASEAN+3, 한·중·일입니다. 이 13개국의 전문가그룹이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구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제안한 ASEAN+6, ASEAN+3에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ASEAN+6를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ASEAN+3는 연구회 보고서가 지난번 완성이 됐는데요. 좌장은 중국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SEAN+3는 맨 처음에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ASEAN+3라는 하나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ASEAN+6에 대해서 그다지 호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SEAN+3가 좋은 건지 ASEAN+6가 좋은 것인지, 또 사실 미국이 이 어느 것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PEC으로 FTA를 하면 어떠냐, APEC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물론 한·중·일, 대만, 러시아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SEAN 10개국 중에 7개국이 APEC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PEC 중심으로 FTA를 마련하면 어떠냐 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ASEAN 국가에는 현재 지금 아시아지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ASEAN+3, ASEAN+6, 그리고 APEC FTA, 그 3가지 FTA 구상이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이 좋은지, 순서대로 연구하고 공부해 나갈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연구를 시작하여 조속히 결론에 달한 것을 기본 틀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한미FTA는 지금 말씀드린 연구, 동아시아 FTA의 연구를 가속화시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한일 경제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논의시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日本은 지금...

라이벌 회사의 약점 발견 프로그램

3期分(3개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라이벌 회사의 사고와 행동 패턴이 보인다. 영업맨에게는 필수라고들 하지만, 시작하기도 어렵고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으면 '라이벌 회사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

<숫자와 액션을 연결>

영업맨이 同業他社의 분석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우선 自社の 업적 추이를 알아야 한다. 자사의 결산서를 분석하고 자신들이 해 온 것을 상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소 시간적 차이는 있어도 자사가 해 온 것은 반드시 숫자가 되어 표시 된다. 재무제표의 숫자를 자신들의 과거 액션과 연결시켜 이해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자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한다.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자. 과거 1년치 분만이 아니라 數年分(최소 3년분)을 비교하여 자사의 업적, 성장력, 수익성이 어떤 추이로 변화해왔는가를 보는 것이다.

우선, 매출은 年 몇 %로 성장해 왔는가? 시장 전체의 정보가 파악되면 시장의 신장과의 비교에서 자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사의 신장이 시장의 신장 이상이면 Share(상품의 시장 점유율) up,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Share down 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을 통해 자사의 위치가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가를 간파할 수 있다.

영업맨이라면 매출총이익을 주목하길 바란다. 배당에 흥미가 있는 주주는 당기순이익에 주목하지만, 영업맨은 착안점이 다르다. **회사의 성장성을 보는 경상이익, 본업으로 얼마의 이익을 올렸는가를 보는 영업이익 등의 기초가 되는 것이 매출총이익인 것이다.**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에 구입한 것을 얼마에 팔았는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붙여 팔았는가?' 하는 **力量的 바로미터(barometer)**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매출총이익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본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면 매출의 성장을보다 매출총이익의 성장을 쪽이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면 매출총이익율은 당연히 올라간다. 상품력이 떨어져 라이벌 상품과의 경쟁에 지면, 싸지 않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율은 반대로 떨어진다.

이와 같이, 영업의 과정을 매출총이익률을 통해 보면 자신들의 활동 결과로서의 매출, Share와 상품력, 상품구성, 그 결과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용(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즉 판매활동, 인건비, 운반비와 판촉비 등의 경비를 차감한 것으로 영업맨의 책임은 전적으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에 있다. 예로 광고선전비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매출을 신장시켰으며, 그 결과로서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한다.

즉 매출과 매출총이익, 또는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살펴 보고 자신들의 액션과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제1단계이다.

<타사의 행동을 추정하고 향후 영업힌트를 파악>

그러면, 同業他社의 분석으로 들어가 보자. 시장을 고려하면서 自社の 분석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본다.

예를 들면, 타사의 매출이 자사의 두 배, 그리고 Share 10%인 자사에 비해 Share가 20%라고 하자. 매출총이익은 어떤가? 2배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 쪽이 이익률이 좋다', '상대는 薄利多賣를 하고 있다. 가격할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자사와 동등하다면, 즉 매출이 배가 되는데도 이익이 같다고 하면 '판매 방법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가 초점이다. '판촉비를 많이 사용, Share 획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숫자의 이면에는 반드시 액션이 있다. 자사의 분석을 근거로 해서 타사의 액션을 추정해 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자사의 향후 영업 활동의 힌트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3년간의 자사 업적 추이에 따라 자사가 무엇을 해 왔는가? 예를 들면, '신제품을 어느 시점에서 개발하여 어디에서 프로모션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확 올랐다. 그러나 이듬해는 同業他社가 경합 제품을 내놓는 바람에 판매가 부진하여 Share down,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에 반격을 도모해 프로모션을 행하자 매출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프로모션 경비가 들어서 이익은 그다지 신장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과정이 보여지듯이 타사도 마찬가지로 과거 3년분의 업적 추이를 분석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자사가 무엇을 하여, 그것에 대해 상대가 어떤 공세를 취해 와서 그 결과 이 숫자가 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

기린맥주와 아사히맥주의 年결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1997년, 44년만에 맥주의 연간매출 톱 자리를 아사히맥주에 내어 준 기린맥주가 '맥주에서는 <슈퍼드라이>에 쫓아갈 수 없다'고 보고, 1998년 1월에 發泡酒 <기린 생>을 발매함으로써 맞불 작전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期부터 2000년 12월期까지 3期分の 年결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공장 재편과 구조조정을 타사에 앞서 행한 기린은 코스트 구조를 재검토하여 매출총이익률을 29.9%에서 35.4%까지 올렸다. 거기에서 올린 이익을 판매장려금과 광고비로 사용, 增收増益(매출증가, 이익증가)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2000년 12월期에 판매장려금, 광고비, 운반비를 크게 증가시킨 것은 신제품 투입과 그 판매활동이다.

이에 비해 아사히는 약간의 판매 증가 중에 원가율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매출총이익이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광고선전비 등 판관비를 억제하여 영업이익을 어떻게든 전년과 같은 수준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일 것이다. 아사히맥주는 2001년 일본내 맥주, 발포주 시장에서 48년만에 기린으로부터 Share 수위를 탈환했지만 회사 자체의 체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기린맥주 쪽이 한수 위다.

숫자와 숫자 사이, 매출과 매출원가의 사이에는 숨겨진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버블 붕괴 후, 각사가 불량자산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에 <特別損失>이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라든가, 토지, 유가증권의 손실 등 매년 처분 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온다.

투자유가증권이었다면 '주식으로 손실을 보았나?'라든가, 공장과 건물의 제각손(除却損), 구조조정한 사원의 특별퇴직금을 보고 '신문에서 본 공장 매각이 이것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감소한 것인가? 그런데 배당은 변하지 않겠나?...'등.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돌리면 재미있을 것이다. 아시히맥주의 특별손실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량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던 불량자산을 이 때에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개를 기억하고 있어도 분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사의 분석에는 貸借對照表도 활용할 수 있다. 재무적인 힘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어떤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하는 유동비율의 수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음의 네 가지 타입으로 이미지화하여 기억하는 것이 간단하다.

지프형(자본>고정자산)은 자본보다도 고정자산 쪽이 적기 때문에 자본의 일부를 통상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반제하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회사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히 강력하다. 수령에도 강하고 작은 지리도 극복해 가는 이미지로 지프라고 하기보다는 전차이다.

역으로 도선형(고정자산>고정부채+자본)은 고정자산을 자본과 고정부채로도 더 이상조달할 수 없는 상태, 즉 단기 차입을 고정자산으로 돌리고 있는 유동비율이 100%를 밑돌고 있는 상태이다.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점점 침수해 가는 것이다.

공장, 기계 등(고정자산)이 자기자금(자본)과 장기차입금 등(고정부채)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소형승용차형(고정자산<고정부채+자본)이다. 고정부채와 장기 차입금이 약간 있지만, 거의 반제필요가 없는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강하다.

자전거형(고정자산<고정부채+자본)은 소형승용차형의 정도는 아니지만, 자산 쪽이 1년 이내의 반제분 보다 많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한 도산하지 않는다. 위의 네 가지 타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의 타입>

1. **지프형** : 공장, 기계 등(고정자산)을 자기자금(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다. 반제가 필요 없는 자금으로 운전 ⇒ [고정자산<자본]
2. **소형승용차형** : 공장,기계 등(고정자산)을 자기자금(자본)과 장기차입금(고정부채)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 [고정자산<자본+고정부채]
3. **자전거형** : 공장, 기계 등(고정자산)을 자기자금(자본)으로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다. ⇒ [고정자산<고정부채+자본]

4. **도전형** : 공장, 기계 등(고정자산)이 자본, 고정부채보다 크다. 자산을 현금화해서라도 바로 반제로 돌려야 한다. ⇒ [고정자산>고정부채+자본]

어설픈 부기 공부 등 일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분개를 기억하고 있어도 결산서 분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산서에서 간파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무면 뿐, 인적 파워와 경영력은 알 수 없는 것이다. **☞**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7. 4>

⇒ **책상 정리법 ~책상 亂雜(난잡), 모두에게 弊(폐)~** ⇐

‘그 자료는 어디에 있지?’, ‘어?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때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을 수 없다. 이런 답답한 기분을 경험한 적은 없는가? 주위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쌓여진 서류 산더미를 청소하는 것은 귀찮다. 그런 정리를 못하는 사람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책상 정리법과 그 守則을 소개하고자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귀찮게 된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서류가 사라지는 체계를 만들면 된다.’ 이것이 일본 대기업 전자 회사에 근무하는 土屋씨(37)가 추천하는 <생각하지 않는 정리법>이다.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모든 서류를 우선 책상의 좌측에 쌓아놓는다. 그리고 업무에 사용한 서류는 순차적으로 책상의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 된다. 우측의 서류를 사용했다면 그대로 위에 쌓아 간다. ‘이렇게 하면 필요성이 높은 서류가 우측의 상부에 모이고 역으로 필요성이 낮은 서류가 책상의 좌측 하부에 쌓인다.’ 그것을 적절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보존이 필요한 것을 마지막에 파일링하면 된다. 캐비닛 등에 잠자고 있는 서류도 순차적으로 책상 좌측에 쌓아 가면 소유물이 자동적으로 정리되어 간다는 것이다. 土屋씨가 책상 정리법을 시작한 것은 6년 전의 일이다. 직장의 책상 대부분에는 50cm 이상의 서류가 쌓여져 있었다.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낀 그는 서류 등을 참고로 <생각하지 않는 정리법>을 고안하여 실천하기 시작 했다. 깨끗하게 정리된 土屋씨의 책상을 본 동료가 얼마 안 있어 모방을 하기 시작하는 연쇄반응도 일어나 서류더미는 차차 사라졌다. 직장의 캐비닛에 있던 30여권의 보존용 자료도 9권으로 줄었다고 한다. ‘누구도 실천할 수 있고, 업무의 진척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책상 정리의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土屋씨를 포함한 10명은 ‘책상정리 기술 향상을 위한 모임’도 갖고 있다고 전한다. <아깝다>, <언젠가 사용할지도 몰라>, <과거의 영광과 추억>.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들 3개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혹을 미련 없이 잘라 버리고 서류를 버리는 것이 <정리의 第一歩> 라고 지적한다. 책상을 타인이 보도록 하여 정리의 효용을 강조하는 리코의 MA사업부 高橋씨(35). 리코는 2005년 말에 본사 기능이전을 계기로 책상 정리를 의무화하는 <그린 데스크(Green Desk)제>를 철저히 실시했다. 퇴근시와 장시간 이석 할 때는 문서와 컴퓨터를 책상에 방치하지 않고 열쇠가 달린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 거기에서 효과를 올린 것이 2개월에 1회, 다른 팀의 스태프가 사무실을 순찰하고 총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도이다. <타인이 책상을 보게끔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즐거움과 의무감을 뿌리 내리게 한다. 이전에 즐겼던 보유 서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리바운드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책상 정리 7가지 수칙**

- ① 책상 위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② 서류 등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경고 신호
- ③ 우선 서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 ④ 버리는 것은 시간을 절약
- ⑤ <아깝다>, <언젠가 필요>, <과거의 추억> 등의 유혹을 뿌리쳐라
- ⑥ 보이게 함으로써 업무의 흐름을 파악 ⑦ 드러냄으로써 보유 서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 **☞**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7. 5>

회원 동정 & 단신

■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은 3월 20일 오전 전경련 임시총회에서 제31대 전경련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 선출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경련이 새롭게 탄생할 것을 약속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4월 10일 완지페이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회장과 수레장 바오강그룹 회장, 자오동핑 중국장성자산관리회사 총재 등 중국 경제사절단의 예방을 맞아 한중 양국의 산업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4월 24일에는 여의도 63빌딩 엘리제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초청돼 '한국 경제진단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개선해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4일에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대사의 예와 노르베르트 주한 독일대사의 예방을 받은 바 있다.

■ 박태준(朴泰俊) 명예회장(포스코 명예회장)

이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육군사관학교 동문들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런 육사인상'을 받았다. 박 명예회장은 5월 1일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개교 61주년 기념식에서 철강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자랑스런 육사인상'을 수상했다.



한편 4월 20일 투병중인 '전후 일본 번영 책사' 세지마 류조 전 이토추상사 회장 자택을 찾아 세지마의 두 손을 꼭 잡고 감회에 젖기도 했다.

■ 조석래(趙錫來) 회장(전경련 회장)과 이수영(李秀永) 고문(경총 회장), 손경식(孫京植) 고문(대한



상의 회장), 김기문(金基文) 고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고광석 무역협회 전무는 4월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 △규제 개혁 △중소기업 상속세제 개선 △환율 및 정책금리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달라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규제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가업 상속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축적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세제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손경식(孫京植) 고문(대한상의 회장)

은 지난 2월 7일 오전 대한상의를 방문한



자한박쉬 모 자파리 주한 이란대사와 환담을 나누었으며, 3월 25일 오후(한국시간) 리야드 시내 알 파이잘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답사를 하였다.

■ 이희범(李熙範) 고문(한국무역협회 회장)

이 10년만에 '유럽통합론' 전면 개정판을 출간해 화제가 되었다. 이 고문은 지난 1997년 유럽연합(EU) 대표부 상무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유럽통합론을 펴낸 바 있으며, 산자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해 2월부터 틈틈이 개정 작업을 진행해 1년만에 전면 개정판을 냈다.



■ 김기문(52·로만손 대표) 시계조합 이사장이 제23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2월 28일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45차 정기총회에 이어 열린 신임 회장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신임 회장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협회는 관례에 의거 **김기문(金基文)** 중소기업중앙회 신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 동양체철화학(주)(**이수영(李秀永)** 고문(경총 회장))는 4월 11일 전북 군산시에 교육발전 장학기금 2억원을 기탁했다. 이 고문은 “지역경제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프라 미흡으로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인구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인재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 **구본준(具本俊)** 부회장(LG상사 부회장)이 최근 왕성한 대외활동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구 부회장은 올들어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멤버에 이어 무역협회 부회장까지 떠맡는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바쁘게 뛰고 있다. 무역협회 회장단회의에서 지난해 말 물러난 금병주 전 LG상사 사장의 뒤를 이어 부회장으로 보선됐으며, 지난 1월 전경련이 운영하는 한미재계회의의 멤버로 LG그룹을 대표해온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의 뒤를 이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우리협회 총회에서 성재갑 LG석유화학 고문의 뒤를 이어 부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한중우호협회장,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4월 10일 오후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하이 흥차오공항과 김포공항 간 정기성 전세기를 운항하자고 제의했다.



■ 3월 21일 대한상의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34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과 **이순종(李)한화 부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손경식 고문(대한상의 회장)은 기념사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영역과 수익모델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과 이 부회장은 이런 면에서 모범으로 꼽힌 셈이다. 올해 매경이코노미 100대 CEO로도 꼽힌 바 있는 김 부회장은 2010년 그룹 매출 6조원 달성을 목표로 정보전자 소재, 외식사업 분야 산업 확장에 꾸준히 힘써 왔다.



■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CEO로 선정됐다. 라 부회장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은행 부문과 비은행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기 때문. 은행부문에서 조흥은행과의 통합을 잡음 없이 이끌어 냈으며, 최근의 인수합병 작업 외에도 20여년간 신한은행에 몸담으며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



■ 오는 6월부터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은 공식행사를 제외하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월 1일부터 ‘자율복장 근무제’를 도입토록 지시한 신 부회장이 솔선수범에 나서기로 한 것. **롯데**는 다음 달부터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기존 정장차림 중 원하는 복장으로 출근하게 된다. 남자 직원은 노타이에 재킷과 셔츠 정장바지 등 비즈니스 캐주얼을, 여직원에게는 유니폼 대신 블라우스와 셔츠를 정장바지나 치마와 함께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 외부 공식행사 등에는 정장차림을 하도록 했다.



■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세아제강 회장)은 2월 27일 열린 한국철강협회 제40회 정기총회에서 비상근 부회장으로 재선임되었다.



■ **윤중용(尹鍾龍)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이 '세계 30대 최고 기업 지도자'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경제주간지 배런스 최신호(26일자)를 인용해 3월 27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오늘날 소니, 메이텍 등 세계 일류 가전업체와 이름을 나란히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며 "이것은 윤 부회장 덕분"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세계 30대 기업지도자로는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제프리 이멜트(GE), AG 래플리(프록터 & 갬블), 스티븐 잡스(애플), 앨런 모스(맥쿼리), 프레드 스미스(페덱스), 제임스 시네컬(코스트코) 등이 선정됐다.



한편 취업포털 커리어는 마젤란출판사와 함께 직장인 1784명을 대상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국내기업 CEO를 조사한 결과 윤 부회장이 1위로 조사됐다. 윤 부회장(20.1%)에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12.3%)과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8.6%)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 **이구택(李龜澤) 부회장**(포스코 회장)이 호주국립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3월 15일 주한호주대사관에 따르면 호주 국립대는 이날 캔버라에서 2002년부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이 부회장에게 명예과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교역과 투자를 통해 한-호 관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로로 지난해에는 호주 정부로부터 가장 명예로운 훈장(Honorary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을 받기도 했다.



■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우성문화재단 이사장, 삼한기업 회장)은 4월 12일 재단 사무실에서 경북여성 박은미 양 등 중·고등학생 소년소녀가장 177명에게 2억234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4월 14일 아베 수상 주최로 일본 도쿄 신주쿠 어원(新宿御苑)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이길현(李吉鉉) 감사**(제주도관광협회 명예회장, 경원 회장)이 참석, 제주~하네다 직항편 취항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올해 중 제주~하네다 정기성 전세기 취항과 2009년 하네다공항 신활주로 확장사업 완료 후 제주~하네다 정기 항공편 취항 등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4월 22일 일본 오키나와 참의원 보궐선거가 끝나는대로 관련부서인 국토교통성에 실무검토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감사는 지난 4월 한일경제인회의시 일

본측 단장단을 안내하여 권오규 부총리를 비롯 산자부·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바 있다.

■ **강신호(姜信浩) 동아제약 회장**은 5월 8일 일본 도쿄 황거(皇居)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으로부터 일본 정부 최고훈장인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았다.



욱일대수장은 일본 정부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외국인의 경우 일본과의 우호 증진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한국인이 욱일대수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강 회장은 한일 재계회의와 **한일경제인회의** 활동을 통해 한·일 경제 및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의 '2007년 춘계 외국인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다.

■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는 국선도 수련 15주년을 맞아 그간의 수련성과를 점검해 보고 단전호흡 수련의 매력을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 오후 3시부터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건강 100세의 길 - 개인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일본의 주요지표

항목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경기동향지수		기업도산건수	국내기업몰가지수 (총평균)
	단위	전기대비연율	전기대비연율	先行DI	一致DI	건	전년대비	
		%	%	%	%		%	
2004년		1.6	1.7	2004년	-	-	13,679	1.3
2005년		0.6	1.9	2005년	-	-	12,998	1.7
2006년		0.3	2.2	2006년	-	-	13,245	3.1
04년 10~12월		-0.1	-0.8	2006년 6월	58.3	90.9	1,111	3.4
05년 1~3월		0.4	3.4	7월	r 50.0	r 100.0	1,051	r 3.5
4~6월		2.1	3.5	8월	25.0	81.8	1,169	r 3.6
7~9월		0.9	2.9	9월	25.0	r 72.7	1,030	3.6
10~12월		0.8	1.4	10월	r 50.0	68.2	1,166	r 2.7
06년 1~3월		1.8	2.9	11월	25.0	r 54.5	1,091	r 2.6
4~6월	p 0.7		p 1.3	12월	r 25.0	63.6	1,109	2.5
7~9월	p -0.1		p 0.5	2007년 1월	p 40.9	pr 30.0	1,091	r 2.1
10~12월	p 5.6		p 5.5	2월	pr 27.3	pr 30.0	1,102	r 1.7
07년 1~3월	3월	1,247	p 2.0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생선식품 중합)	광공업생산지수 제외	기계수주 (선박, 전력 제외, 民需)	신설주택착공	소비지출 (전세대)	대형소매점 판매액	승용차판매대수 (보통, 소형, 경차)
	단위	전년대비	전년대비	季調, 전년대비	未季調	전년대비	점포조정필 전년대비
	%	%	%	戶	%	%	대
2004년	-0.1	5.5	4.4	1,189,049	0.4	-3.5	4,768,131
2005년	-0.1	1.1	7.1	1,236,175	-0.8	-2.3	4,748,409
2006년	0.1	r 4.8	4.0	1,290,391	-1.9	-1.2	4,641,732
2006년 6월	0.2	r 1.4	8.5	114,331	-1.1	-1.2	405,768
7월	0.2	r -0.1	-16.7	106,649	-0.8	-1.4	396,266
8월	0.3	1.1	6.7	111,187	-3.3	0.1	283,446
9월	0.2	r -0.5	-7.4	112,442	-5.2	0.8	438,104
10월	0.1	r 1.5	2.8	118,360	-1.8	-1.7	332,350
11월	0.2	r 0.4	3.8	115,392	-0.3	-0.8	362,253
12월	0.1	r 0.8	-0.7	107,906	-1.5	-2.4	330,905
2007년 1월	0.0	r -2.3	3.9	92,219	0.6	-0.5	308,255
2월	-0.1	r 0.7	-5.2	87,360	1.2	0.5	424,937
3월	r 639,497

항목	소정외노동시간 (전산업)	완전실업률	유효구인배율	경상수지	무역·서비스 수지	자본수지	무역액 (주간베이스)	
	단위	季調	季調	억엔	억엔	억엔	수출	수입
	시간	%	배	억엔	억엔	억엔	억엔	억엔
2004년	10.3	4.7	0.83	186,184	101,961	17,370	611,700	492,166
2005년	10.4	4.4	0.95	182,591	76,930	-140,068	656,565	569,494
2006년	10.7	4.1	1.06	p 198,390	p 73,336	p -122,959	752,544	671,637
2006년 6월	10.5	4.2	1.07	10,245	6,581	-1,941	62,709	54,655
7월	10.6	4.1	1.09	18,096	6,767	-12,504	63,212	54,630
8월	10.3	4.1	1.08	14,769	1,769	-7,003	61,413	59,464
9월	10.5	4.2	1.08	20,249	8,904	-16,764	68,318	58,225
10월	10.8	4.1	1.07	15,303	4,320	-10,660	65,927	59,838
11월	11.1	4.0	1.07	17,457	9,532	-2,143	66,307	57,212
12월	11.2	4.0	1.07	17,816	10,250	-10,752	69,598	58,472
2007년 1월	10.6	4.0	1.06	p 11,944	p -785	p -17,158	59,532	59,567
2월	p 10.9	4.0	1.05	p 24,175	p 10,488	p -19,300	64,177	p 54,409
3월

(출처) 내각부, 일본은행, 동경상공리서치, 총무성통계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후생노동성, 재무성 (주) p는 속보, r은 정정. GDP성장률은 실질치의 산정을 연쇄방식에 의해 변경. 소비지출은 전세대(농림어가세대를 포함)의 수치. 소정외노동시간은 사업소규모 5인 이상

2007 한일중 산업교류회(서울)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안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센터에서는 오는 6월 13일(수)~16일(토), KINTEX(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07 韓日中 産業交流會(서울)에 참가하는 일본계 기업의 비즈니스 안전별 맞춤 상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본계 기업과의 비즈니스상담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JETRO서울센터 사업투자팀 과장대리 강진숙 Tel.02-399-5911)

- 상담일시 : 2007년 6월 15일(금) 10:00~17:00 (1건당 1시간, 중식12:00~13:00)
- 상담장소 : 전시회에 참가하는 일본계기업의 부스 (KINTEX, 4홀)
- 대상분야 : 기계제품/부품, 전기전자 제품/부품, IT, 의료기기, 자동차, 물류, 기타
- 상세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참조 ⇒ <http://www.kjcbusinessfair.org/japan/busi/01.asp>